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를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자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 진행

최대한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가 8일에 진행되었다.



해주뜨락뜨로부속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새해의 첫 체육의 날 해주뜨락뜨로부속품공장은 혁명적만민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대중체육 활동으로 흥성거렸다.

너도나도 운동복을 पह니고 열렬한 음악에 맞추어 진행하는 기적적인 건강매진도와 대중운동제조에 이어 다채로운 체육경기들도 온 공장이 들끓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고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장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선광들을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느낀 것은 모든것이 훌륭히 치달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육의 날 경기일정을 놓고도 이렇듯 잘 할 수 있었다.

이날 진행된 바드민턴, 정구, 바둑당기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 경기들도 볼만 했지만 지배인, 조공무원위원장, 기사장이 참가한 탁구, 배구, 축구경기는 절정을 이루었다.

경기들은 처음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벌써 선수 공격을 맞이하는 일군들의 수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집단주의정신과 완강한 투지, 세심한 기술도 보통이 아니었다.

방장종업원들의 응원열기도 뜨거웠다.

경기장에 넘치는 탄성, 그렇게 울리는 힘찬 응원소리... 매일 엄격한 훈련과 대중운동제조, 건강매진도 등 대중체육활동을 정상화하고 작업반별 추수,

지력자강의 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힘있게 뚫어 나가기 위하여 전진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 정부원들의 혁명적

기력과 단결력을 시위하며 달리는 참가자들의 활기에 넘친 모습은 마치 양양된 수도의 혁명적 분위기를 더한층 높여주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의 앞장에서 대오의 기원자가 되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미낌을 세차게 일으켜갈 일념으로 발구름소리를 높여나갔다.

집단달리기에 이어 대중운동제조와 건강매진도모임소셜이 있었다. 이날 건강속령양제사공장, 평양화력발전소합업소를 비롯한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에서도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진행되었다.

한편 각 도시, 군들에서도 집단달리기와 다양한 체육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백배해지는 집단의 위력 남포항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신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여야 합니다.》

새해의 첫 체육의 날 남포항 체육관을 찾았을 때였다. 체육관에서는 황의 각 부서 일군들사이의 대중운동제조 및 건강매진도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산뜻한 운동복들을 차려입고 대중운동제조와 건강매진도를 하는 선수들의 동작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단번에 체육을 생활화하고있는 단위를 느꼈다.

이러한 경기의 절정을 이루는 부시별배구경기가 시작되었다. 업무부문과 행정부문간의 경기는 처음부터 백배되는 열정을 보였다.

처음부터 달고, 강리와 분예, 반공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때는 승부가 나지 않아 배구공이 얼얼이상이나 그물을 넘어

오고가는 이슬이슬한 광경도 펼쳐졌다. 응원자들은 열이 올라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선수들의 눈에는 승부심과 초진각이 비쳐 마치 돌을 내뿜는것만 같았다.

지연 승부심, 지연 경정의욕이 집단의 단결력과 위력을 배배로 강하게 배돋아주는 일군들의 말을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체육관 2층에서 벌어지는 황창 박은동동무와 함양위원장 안은라동무간의 탁구경기는 관중이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같은 걸이치고 짜아지기, 뽀뽀 공격과 즉시적인 반공격을 능숙하게 배합하여 세차게 하는 경기들을 볼수록 흥이 넘쳐났다.

이제 경기의 절정을 이루는 부시별배구경기가 시작되었다. 업무부문과 행정부문간의 경기는 처음부터 백배되는 열정을 보였다.

처음부터 달고, 강리와 분예, 반공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때는 승부가 나지 않아 배구공이 얼얼이상이나 그물을 넘어

력파 단결력을 시위하며 달리는 참가자들의 활기에 넘친 모습은 마치 양양된 수도의 혁명적 분위기를 더한층 높여주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의 앞장에서 대오의 기원자가 되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미낌을 세차게 일으켜갈 일념으로 발구름소리를 높여나갔다.

집단달리기에 이어 대중운동제조와 건강매진도모임소셜이 있었다. 이날 건강속령양제사공장, 평양화력발전소합업소를 비롯한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에서도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진행되었다.

한편 각 도시, 군들에서도 집단달리기와 다양한 체육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강원도 송배전부에서 랑만과 희열을 더해준다

《우리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대중체육은 사업과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고있습니다.》

얼마전 도적으로 대중체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강원도송배전부를 찾은 우리에게 이곳 직방 일군이 알려주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기서 인제 체육경기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다는 사실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체인사업을 시작한 운영활동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중체육이 바람로 집단의 위력과 단결을 이룩하게 하고 나 1등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체육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그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중체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끌어내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혁명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탐구하는 한편 자기 단위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혹은 단위별로 체육경기의 도입으로 조직하였다.

우리를 안내한 일군은 오늘과 같이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는 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힘을 바로 가지고 앞장서 선 걸과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10년전까지만 하여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대중체육은 사업과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로 되고 있었다.

수시로 천장에 나가 세기되는 직력보장을 위해 드마른 남들을 보내는 조건에서 인제 체육경기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다는 사실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체인사업을 시작한 운영활동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중체육이 바람로 집단의 위력과 단결을 이룩하게 하고 나 1등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체육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그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중체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끌어내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혁명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탐구하는 한편 자기 단위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혹은 단위별로 체육경기의 도입으로 조직하였다.

우리를 안내한 일군은 오늘과 같이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는 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힘을 바로 가지고 앞장서 선 걸과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체육소조운영과 과외학습 삼지연군 삼지연고급중학교에서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여 지라하는 세세대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자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체육소조운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때문에 삼지연군 삼지연고급중학교에서도 체육소조운영을 잘 짜고있었다.

학교의 체육소조운영에서 주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조원들에게 대한 과외학습지도가 특색 있게 진행되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일군들이 책임지고 참가하여 여가시간에 진행되는 경기가 다 승부심이 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에게 체육 지식과 상식을, 경기요리도 차근 차근 알려주었다.

그러고 단위별사주의 경쟁을 진행할 때마다 대중체육을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포함시켜 사업이 더욱더 생활화되도록 하였다.

활발히 벌어지는 배구와 축구 볼 비롯한 대중체육활동은 단위에 혁명적정신과 열정이 차인되지 않고 집단의 단결과 위력이 보다 훌륭히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혁명사업수행에서 높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대중체육이 바람로 집단의 위력과 단결을 이룩하게 하고 나 1등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체육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그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중체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끌어내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혁명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탐구하는 한편 자기 단위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혹은 단위별로 체육경기의 도입으로 조직하였다.

우리를 안내한 일군은 오늘과 같이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는 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힘을 바로 가지고 앞장서 선 걸과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교장 전금실, 부교장 미기봉 동무들은 오전에 수업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체육소조원들의 투성에 맞게 과외학습지도의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소조원들이 체육기초기술과 경주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실감있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하루 훈련시간에 여가있는 과외학습을 진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서른 북조선에 대한 제제압박은 지금과 같이 계속될것이라는 우려의 대북간담도르케트 드시할사촌비를 결코 높이지는 않겠다고 단언하며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대북간담도르케트제 압박은 미국의 남로 약탈적지배의 경제정위태에 대처한 자위적국방경쟁의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적이 메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정경당면한 로제트발사준비를 《도발》과 《위협》으로 때려도하며 제제압박에 대해 때치고있다.

5일 미국무성 부장관은 북조선의 위협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느니,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모든것은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와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의학연구소 정신신경의학연구소의 주부소소의 의료진단이 6년세월 임상에 누워 있던 한 처녀를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활보하게 하였다

는 소식을 듣고 그 뜻을 찾았다. 본소에 들려 환자의 병력서를 펼쳐보는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뜻밖의 일로 2010년 여름 뇌리박을 받은 환자는 말도 못했고 전혀 듣지도 못했다. 그때로부터 의부소소에 입원하기 전까지의 나날은 그 단숨에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처녀는 전진정령을 일으키며 온몸을 떨었다.

그때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마름사람들이 해당 질병정보에 경험 있는 의료일군들을 소집도 하여주었던 처녀의 병은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처녀의 의부소소에서 치료받고나서 이제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우스개소리로 말하더니 대치할 힘차게 활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대보았다.

《생생히, 이제 우리 딸의 건강 회복이야 어찌 미려리리란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어 주었다면 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오소하였다.》

《생생히, 이제 우리 딸의 건강 회복이야 어찌 미려리리란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어 주었다면 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오소하였다.》

《생생히, 이제 우리 딸의 건강 회복이야 어찌 미려리리란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어 주었다면 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오소하였다.》

《생생히, 이제 우리 딸의 건강 회복이야 어찌 미려리리란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어 주었다면 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오소하였다.》

《생생히, 이제 우리 딸의 건강 회복이야 어찌 미려리리란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어 주었다면 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오소하였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겨울철야영 시작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 밝고 눈부신 울타리의 환희를 더해준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의 첫겨울철야영이 시작되었다. 자녀하는 세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사랑의 선물처럼 봄을 실고 시상에 붙도 없는 것들이 공전에 도착한 학생소년들의 행복과 기쁨은 끝이 없었다.

학생소년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위대한 어머니와 딸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첫겨울철야영시작모임이 8일에 진행되었다. 관세부, 야영소

생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어 그들이 야영기간을 환영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야영생활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위대한 어머니와 딸다발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활의 분별행진이 있었다. 야영기간 학생소년들은 마시명스키장에서 스스, 스키, 스케트, 패들러 등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한 처녀의 소원을 풀어준 고마운 사람들

의학연구원 정신신경의학연구소 의부소소에서

상대했지만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낮에는 어디를 오가며 해당 분야의 의료일군들을 만나고 밤에는 늦도록 문헌자료를 찾는 최희철동무를 본소의 의료진단이 적극 도와나섰다.

어느 보름이던지 처녀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진정령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가파르다 일어났다. 그러다 바리바리하다 소원이 성취된 그날 처녀는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한탄만이라도 세발로 걸는 것이 소원이던지 처녀는 최희철동무에게 더러는 언덕에 걸고 싶다고,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자기 건강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불을 토하며 말했다.

며칠후 담당의사의 부속에서 힘있게 걸음을 내딛으며 병원구내를 나선 처녀는 말했다.

5년만에 처음으로 제정으로 걸어 바깥세계를 하게 된다고, 저 하늘의 태양을 두번다시 입어 내 보게 되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그때부터 많은 시일이 흘렀

우리는 최희철동무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 의 차이에도 대한 답하게 된다.

정말한 처녀의 건강증진을 위해 30여일동안 하루와 같이 바쳐온 의부소소의 의료진단의 이야기도 뜨겁다.

본소건설과 의료봉사활동에서 자기희생의 많은 분들을 돌보아 주는 바깥 구내에서 환자들에게 깊은 환심을 들린 일군들의 김영실, 전진정령동무와 최희철동무의 환자치료에 지혜를 합친 박사들인 남정우, 리명환, 김진중동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자의 탈환을 위하여 힘써준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높이 기리는 우리 나라에는 마음속그늘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는 안된다. 이 자를 안고 바쳐온 이들의 노력이 있어 의부위의 헌정명 한 처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을뿐더러 고마운 조국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장로의 바치리리란 소원을 다시 이룰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철환

